

KB STARS Magazines

제 14호

〈리뷰〉

"KB스타즈 배구단이 극복해야 할 과제"

〈신인선수 소개〉

"황택의, 신해성, 박민범, 백민규 선수"

〈KB스타즈 뉴스〉

"에너스킨 협약식 및 경기장 이벤트"

[2R KB경기안내]

11/12(토) vs 삼성화재_대전

11/16(수) vs 대한항공_인천

11/19(토) vs 현대캐피탈_천안

11/23(수) vs OK저축은행_안산

11/27(일) vs 우리카드_서울

11/30(수) vs 한국전력_구미



KB손해보험스타즈배구단



하현용, 손현종 선수의 부재가 아쉬운 KB스타즈

2016 KOVO 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시즌 시작 전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KB스타즈의 대표 하현용 선수는 빠른 속공과 높은 블로킹 타점으로 V리그에서 인정받는 센터입니다. 이번 KOVO컵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이선규 선수와의 호흡은 블로킹이 약점이었던 KB스타즈의 단점을 보완해 최강 센터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현용 선수가 개막직전, 블로킹 연습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며 원업존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3라운드에 복귀를 예상하고 있으나 비시즌동안 구슬땀 흘리며 연습한 센터진의 완전체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더욱이 레프트로서 큰 키를 자랑하며 블로킹과 공격이 강점인 손현종 선수는 이번시즌 KB스타즈의 '키 플레이어'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수비형 레프트로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피로골절로 인해 코트에 나설 수 없는 그의 빈자리는 더욱 커 보입니다.

KB스타즈, 홈 경기 딜레마

이번시즌 KB스타즈는 유독 홈경기에 약합니다. 왜 홈경기에서는 충분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홈경기는 선수들에게 홈 어드밴티지를 통한 힘이 될 수 있지만 승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현재 코트에 있는 KB 선수들은 그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어 보입니다.

배구는 단체운동으로 팀웍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긍정의 마음보다 더욱 빨리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들과 스태프는 코트 안에서 서로 믿고,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주변에서 만드는데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는것 처럼 부담을 떨쳐 버리고 KB선수들이 홈경기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구미 KB스타즈 배구단 팬들은 승/패 보다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싶다

신인선수 소개

20 박민범 (180cm 78kg 23살 리베로)



1. 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 초등학교 때부터 앉아서 공부 하는 거보단 뛰어놀고 운동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우연히 학교 체육대회에서 배구를 했거든요. 근데 저의 학교 배구부 감독님께서 운동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 가장 잘 챙겨주는 선배는 누군가요?

- 형들이 진짜 다 잘해주시는데 그래도 룸메이트인 진만이 형이 제일 많이 알려주고 잘 챙겨줘요.

3. 오로나민범이라는 별명처럼 정말 팀에서 비타민 역할인가요?

- 오로나민범... 제 별명을 오늘 처음 듣네요. 비타민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팀한테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게 응원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다 보면 비타민이 되겠죠?

19 백민규 (189cm 86kg 26살 레프트)



1. 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니던 학교에 배구부가 창단하게 되었는데 오래친구들보다 키가 커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가장 잘 챙겨주는 선배는 누군가요?

- 이강원 선수입니다. 같은 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챙겨주는 것 같아요.

3. 신인 드레프트에 늦게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에서 배구코치, 엘리트레이너 등 일을 하다가 학교로 복학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드레프트는 자연스럽게 늦어졌습니다.

18 신해성 (193cm 84kg 23살 레프트)



1. 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 운동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저녁마다 따라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배구 코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아이들보다 키가 커서 코치님께서 권유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하고 싶었어요.

2. 가장 잘 챙겨주는 선배는 누군가요?

- 운동시간 외에도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수왕이형이 잘 챙겨주세요. 제가 프로에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깐 모르는 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형이다 보니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형이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방에서 어색한 분위기보단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재미있게 해주세요.

3. 팀에서 막내인데 선배(형)들에게 애교가 많은 편인가요?

- 애교는 없는 편인데... 아무래도 있으면 좋겠지만 남자가 약간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신입이니까 노력하는 편입니다.

16 황택의 (190cm 70kg 21살 세터)



1. 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 친척 형이 동종해서 살 빼려고 같이 갔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2. 가장 잘 챙겨주는 선배는 누군가요?

- 선규형이 시합 끝나고 간식을 챙겨준다든지 개인 운동을 나갈 때나 어디 갈 때에 선규형 차타고 같이 가고 방에서도 말 많이 해주고 그래요.

3. 주전으로 몇 번 경기에 출전했는데 선배들과 직접 경기를 뛰어보니 어땠나요?

- 처음에는 긴장해서 끝나고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났는데 계속 들어가서 뛰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주전으로 뛰었을 때 이기면 더 재밌을 거 같아요!

4. 평소애나 경기 전, 후에 즐겨먹는 간식이 있나요?

- 바나나!

KB스타즈 & 에너스킨 협약식



KB스타즈가 기능성 스포츠 브랜드인 '에너스킨' 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에너스킨은 세계 최초로 입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출발한 기능성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에너스킨에서 KB스타즈 배구단에게 제공하는 '입는 형태의 실리콘 테이핑 기어'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는 물론 운동에 필요한 기능을 발달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들이 최고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입니다.

홈경기 직관 이벤트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능해방 이벤트



2017 수능 수험표 지참 시 KB스타즈 2016년 잔여
홈경기에 무료 초청 하오니 배구도 보고 스트레스도
풀고!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구미박정희체육관으로 놀러 오세요

*일반석에 한함

수험생 무료 초청경기 일정 안내

2016년 11월 30일(수) 19시 vs 한국전력
2016년 12월 13일(화) 19시 vs 한국전력
2016년 12월 17일(토) 14시 vs 삼성화재
2016년 12월 20일(화) 19시 vs OK저축은행

홈경기 선수
응원 메시지 이벤트

KB스타즈를 보기 위해 구미 박정희 체육관을 찾아주신
팬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

경기장 내 이벤트 존에서 KB스타즈 선수들에게 감동적이고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메시지 선발을 통해 무기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주세요! 00211

작년 부터 내공이 쌓였는데 KB스타즈 경기는 환상적 해설이
실용성이나 약점의 제보만 아니라 팬들의 선을 모두 다
공감지 일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수 작성해서 1000
이번 시즌도 모두 부상없이 훌륭한 성적 거둬달라
관경기, 완경기 중간에 개작하면 좋겠어요!
이제 저에게 내공은 봄 여름 가을을 버티기 해주는 위용력이 되려
KB스타즈 화이팅!
-KB스타즈를 응원하는 여대생

행사기간 2016~17 V리그 구미체육관 홈경기

당첨발표 매 경기 현장에서 선발 0명

발행처 :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발행일 : 2016년 11월 30일
www.kbstarsvc.co.kr www.facebook.com/kbstarsvc

챌린저 8기 : 박재호, 박서진, 백지훈, 김태완
문의사항 : kbstarsvc@naver.com